

김 영 옥
(한국돼지질병연구회 회장)

돼지 전염성 위장염(伝染性胃腸炎: TGE)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주, 제천, 인천, 수원지구에 발생하여 계속 번지고 있다고 신문과 TV에서 2월들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는 경남, 전남, 그리고 경기도의 이천·여주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말 농촌진흥청에서 발생보고를 내린바도 있다.

결국 금년 4월말까지 티·지·이·(TGE)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탓이 아닐까?

작년 봄 전국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이 TGE 바이러스(병독: 病毒)는 전국 어디에나 확산

되어 있었다. 작년에 이 병의 피해를 입지않은 농장들은 지난 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각별한 경계를 해 왔어야 했다.

지난 구정때 시골에 있는 내 고향집에 갔을 때 일이다. 집에서 “버크샤” 두마리를 어머님이 기르시는데 얼마전에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두마리 모두 설사를 심하게 하더니 이틀전에 설사를 멈추고 사료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혹시나 해서 우릿간을 살펴보니 돈방벽에 물똥을 썬 흔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설사할 때 수도꼭지를 열어 놓은 듯이 “콕콕”하더니야고 물었더니 물총쏘듯 “쭈쭈” 싸더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머님께 그것은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라는 설사병인데 우리 돼지가 100근쯤되는 중돼지라 설사만하고 나았지만 젓먹는 새끼들이 있었다면 다 죽일뻔 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걸 아버지는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 채했던지 ‘짜구’가 났다고 나를 야단치시기만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다. 솔직히 아직도 이 티·지·이·(TGE)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산골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또 작년 일이다.

어느 큰 양돈장을 갔더니 외국에서 도입돈도 들여오고, 국내 종돈장에서 돼지를 사들였는데 한두마리가 설사를 하더니 계속 다른 돼지들이 번갈아 거의 두달넘게 설사를 했다고 한다. 당시 그 농장에는 육성돈과 임신중인 돼지만 있어 정말 운 좋은 양돈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운입니다. 돈 안드리고 TGE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 셈이니 앞으로 1~2년은 TGE 걱정을 별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고 말했더니 모두 웃으며 TGE 인줄도 모르고 고생하면서 설사치료만 한다고 약만 수십만원어치 썼다고 한다.

물론 TGE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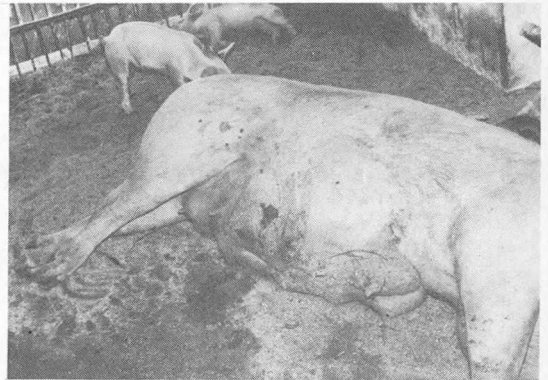
모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또 TGE가 사료때문에 걸렸다고 사료회사에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예도 많았다. TGE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료를 바꿔먹인지 며칠 안되어 설사병이 생겼으니 틀림없이 사료탓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이 설사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배꼽을 잡아야 할 에피소드가 있다. 가까운 인근부락에서 4년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해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돼지키우는 사람들끼리의 얘기 중에 TGE치료에 “옷”(칠기에 칠하는 원료)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다. 전염성 위장염(TGE)이 발생하자 옳다구나 하고 그 구하기 어려운 옷나무 칠을 사다가 종업원하고 옷이 올라 온 몸이 부풀어 병원신세를 졌다. 그 바람에 감추려던 병났다는 사실도 폭로되고 고생만 실컷했다니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즈음
전국 일원에서
TGE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철저히**

11월부터 4월 사이의 추운 계절에 어미와 새끼 모두가 가끔씩 토(吐)하고 물같은 설사를 “콕콕” 하거던 일단 전염성 위장염(TGE)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모돈이 설사를 하고 젖이 말라 붙어버린다. 그래서 딸린 새끼들은 굶으면서 토(吐)하고 계속 설사를 하니 몸에 물기라고는 없어서 뼈만 앙상히 남은채 죽어간다.

이 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 양돈가들이 특히 주의하거나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다. TGE가 유행할 때는,



1. 사료차, 출하차, 방문객, 돼지상인을 조심하라

① 사료차는 사료와 함께 병을 날라줄 수 있다.

② 출하차는 도살장에 드나들고, 타양돈장에서 병걸린 돼지를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방문객과 상인의 돈사출입은 병을 모셔다 넣는 결과를 가져 온다.

2. 외부에서 특히, 시장에서 돼지를 사다 넣지 말아라 (부득이 종돈을 사와야 할 때는 확실한 곳에서 사야한다.)

① 시장돼지는 병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근 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양돈장에서 사야 하며, 그것도 일단은 1~2주일간 격리 사육 후 입식시켜야 한다.

3. 임신모돈에 보강접종을 해 주어야 한다.

① 기본적으로 1차 분만 5주전, 2차 분만 2주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분만 1주일~5일전, 임신사에서 한번더 보강접종을 실시해 분만사에 입주시킨다. (특히, 초산돈은 1~2차 접종을 했어도 면역된 힘이 약하거나 면적이 잘 안된 돼지가 섞여 있다.)

4. 인근에 TGE가 유행할때, 마침 자기 양돈장에 보름이내 분만할 돼지도 없고, 젖먹는 새끼도 없다면 차라리 똥을 얻어다 인공감염을 철저히 시켜 버려라. (똥은 꼭 항

생제를 섞어 먹여야 한다. 곧 새끼를 낳을 임신돈이나 젖을 먹고 있는 돼지가 있을 때는 절대 엄금)

① 후보돈만 입식시켜 새로 시작하는 양돈장은 돈 안 들이고 확실한 예방약을 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임신돈은 잡균 때문에 유산할 수 있으니 꼭 항생제를 충분히 타서 먹여야 한다.

③ 이 방법은 어차피 전염될 위험성이 크고, 보름 후면 새끼를 낳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없애야만 하는 부득이한 양돈장에서만 사용하기 바란다.

5. 만약 TGE가 발생하거든 다음과 같이 하여 피해를 줄여라.

① 새끼를 낳고 있는 분만사는 온도를 높게

유지하라. (실내온도 20~30℃ : 특히 열에 약한 병독이다)

② 분만사는 철저히 차단하여 가능한 한 늦게 감염되도록 노력하라. (일령이 많아질 수록 피해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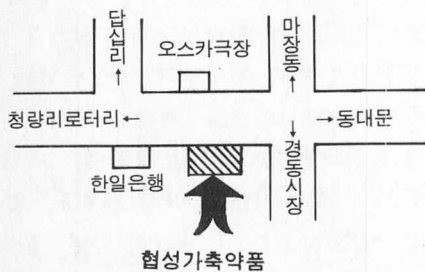
③ 임신돈들은 항생제를 섞은 설사변을 2~3일간 계속 먹여라. (단, 7일 이내 분만할 임신돈은 격리를 완벽히 시킨후 시행해야 한다.)

④ 어린 육성돼지는 항생제를 먹이고, 포유자돈중 20일령이 넘는 돼지를 집중치료하라. (10일령 이내 자돈치료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⑤ 자돈치료는 포도당, 전해질 공급을 음수, 또는 복강주사로 해 주면 항생제 단독보다 치료 효과가 좋고 회복이 빠르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 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 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 약품 도매 전문 *

☎ 3131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 967-8779 · 964-4870